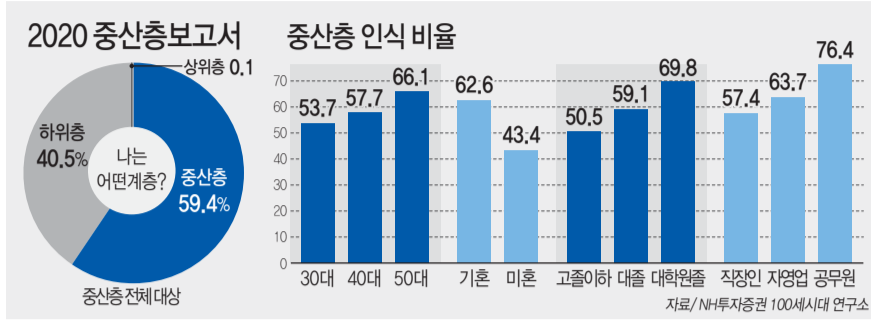


국민 40% “7억 없는 난 하위층” 금융 빅데이터 추가 개방… 사업기회 확대

NH투자증권 2020 중산층 보고서
순자산 7억이상 중산층 속한다 인식
중산층 가구 월평균 소득 488만원
노후 준비 안한 중산층, 절반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자산이 7억원
은 넘어야 중산층에 속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산
층 10명 중 4명은 자신을 하위층에 해
당한다고 인식했다.

중산층은 상위권 선진국에 살고 있지
만 현실의 삶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
일 공개한 ‘2020 중산층보고서’에서 30
~50대 1349명을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순자산(총자산-부
채)이 7억7000만원(이하 4인 가구 기
준)은 돼야 이상적인 중산층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월 소득 수준이 622만
원, 소비 수준이 395만원은 돼야 중산
층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중산층 가구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의 월평
균 소득은 488만원, 소비 수준은 227만
원이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계층 인식을 물
은 결과 10명 중 4명(40.5%)이 자신을
스스로 하위층에 해당한다고 인식했
다. 중산층의 낮은 계층 인식은 노후준
비 현황에서도 이어진다.

김진웅 100세시대연구소 부소장은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안에는 들
어야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생활비는
279만원(부부 2인)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대략 7억~9억원 정도의 노후
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중산층의 노후준비(연금)지수는
69.4%에 불과했다.

한편 ‘2020 중산층리포트’는 NH투
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중산층 절반 이상
(52.3%)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
다고 답했다.

중기부, ‘BIG3’ 분야 이끌 벤처 250곳 선정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1차 선정 후 2차 151개, 스타트업 1곳
1당당 사업·연구개발자금 최대 12억

〈분야별 최종 선정(안)〉

분야	시스템반도체(50)				바이오헬스(130)				미래차(70)		합계
	SoC	센서	아날로그	인프라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	친환경차	
2차	14개	8개	4개	7개	32개	12개	12개	13개	26개	23개	151개
기선정*	11개	2개	3개	1개	24개	18개	12개	7개	9개	12개	99개
합계	25개	10개	7개	8개	56개	30개	24개	20개	35개	35개	250개

*1차 선정 98개, 미래차 해커톤 우승기업 1개, 경쟁률 3.1:1
(선정목표 350개 대비 777개 신청, 시스템반도체 1.9:1, 바이오헬스 4.1:1, 미래차 2.1:1)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분야를 이끌어갈 스타트업, 벤
처기업 250곳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BIG 3
분야 지원기업 98곳 선정에 이어 2차로
151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
러 지난해 12월 메르세데스-벤츠와 공
동 개최한 미래차 분야 ‘커넥티드카스
타트업 해커톤’에서 우승한 기업 1개사
까지 총 250곳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1당당 최대 12억
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
과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진행한 2차 모집엔 총 456개 기업이 신
청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285명이 성장 잠재력을 검증하
고 국민참여단 82명의 의견을 반영해
15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250개 기업의 면면을 보면 바이오분
야가 130곳으로 가장 많고, 미래차 70
곳, 시스템반도체 50곳이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자
금 지원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기업혁신멘토단을 통해 과제 기획
부터 성과 점검까지 기업의 성과 창출
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멘토단에는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서
울대학교, 바이오헬스는 안정성평가연

구소,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미래차 분야는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고
려대학교가 각각 참여한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신산업의 세부분야별 스타트업에 대
한 전주기 지원은 중기부가 처음 시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선정된
기업들이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BIG3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휴가 2시간씩 쪼개쓴다… ‘반반차’ 도입



업무 효율·몰입도 향상 기대

판토스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판토스는 노경협의회를 통해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쪼개는 반반차 제도를 7

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직원들이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을 높이
고,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해 만족도를 높
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반차 제도’는 기존의 반차(4시
간) 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확대한 것으
로 연차의 4분의1, 즉 2시간 단위로 휴
가를 나눠 쓰도록 해 근무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선진 근무 제
도다. 특히 육아나 가정 행사 등 다양한
사유로 1~2시간의 출·퇴근 시간 조정
이 필요한 직원 등이 개인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
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판토스는 지난해부터 ‘8-5제’, ‘9-6
제’, ‘10-7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선
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안
정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김승호 기자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데이터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금융결
제원에도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
해 거래 중계과정서 발생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빅데이터 제공
범위를 늘려 핀테크 창업기업등에 신
규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정보원과 금
융결제원을 통해 빅데이터 개방을 확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유통·결합
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원의 CreD
B를 확대해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로 개방한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권에 축적된 금융정보(개인·기업·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에 제공했지만, DB범위에 보험정보
가 제한되고 분석시스템에 제한된 인
원(40명)만 접속 가능해 시스템을 고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기존의 DB
범위에서 보험DB를 추가로 개방한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정보를 샘플링 후 비식별 처

보험DB활용 연구 사례
20대 초반 데이터 부족해 결과의 신뢰도↓
5% 샘플링 + 정해진 항목

↓

맞춤형 DB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5% → 20%로 확대하고
DSR·보험가입 등 추가정보 제공

↓

정교한 지원정책 연구
20% 샘플링 + 추가 항목

자료/금융위원회

리해 제공한다. 보험DB 이용을 신청하
고 선정된 회사(연구자)는 오는 8월 보
험DB를 받아들 수 있다.

또 신용정보원은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 DB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
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
링 비율을 확대한 DB를 제공해 20대
청년층의 부채현황 심층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정보를 통계등에서만 제한적
으로 사용해 핀테크·창업기업이 활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금
융결제원은 금융회사간 계좌이체 등
거래 중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중계성 데이터(기관코드, 거래정보
등)와 고객정보데이터(납부정보, 발급
정보 등)로 구분해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중계성 데이터를 금융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실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가운데)과 모델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패스 모
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공인 신분증을 디
지탈화 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 받은 국내 최초의 서비스로 7월 1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
험장에서 면허 재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

템퍼코리아, 행복의 비결 ‘휘게 캠페인’ 실시

템퍼코리아는 ‘휘게에서 찾은 행복
(Happiness found in HYGGE)’ 캠페
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런 캠페인은 템퍼의 본고장인 덴마
크의 행복비결 ‘휘게(HYGGE)’를 주제
로, 일상 속에서 찾은 행복을 소중한 사
람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템퍼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아이너
엔센(Einer H.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에게 휘게에 관한 문화 자료도 받
았다. 템퍼는 아늑하고 편안함을 의미
하는 휘게의 핵심은 ‘분위기’와 ‘사람
들’이라고 말하는 덴마크 대사관의 자
문을 토대로, 일상에서의 휘게를 즐길
수 있는 ‘휘게 기프트박스’(사진)를 기
획·제작했다.

고객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휘게가 의미하는 일상 속 행복을 함
께 나누길 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템
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이벤트 마감은
26일까지다. /김승호 기자